

실처럼 피어오르는 불빛, 불박이용 등화구 고를불

글 |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너와집에 피운 고를불 / 사진·황헌만



아득한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어둠을 밝히는 데 썼던 등화구를 어찌 다 열거할 수 있을까. 이 가운데 아직까지 신비한 낭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이름도 낯선 ‘고콜’ 또는 ‘고콜불’이라 일컫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람벽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불이어서 지붕처럼 흠을 발라 그 밑에
관솔불을 켜 고콜에서는 관솔이 그을음을 피우며 타고 있었다.

소설가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에 묘사된 장면의 하나다. 바람벽, 관솔불, 고콜 등의 어휘에서 보듯 가난이 짙게 드리운 듯한 느낌을 주고 옛 살림살이의 형편을 짐작하기에 충분한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콜에 켜놓은 관솔불’이다. 고콜, 관솔불이라는 이들 어휘는 고콜불을 둘러싼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바람벽에 놓인 고콜이 그렇고, 관솔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렇다. 바람벽은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돌레의 벽을 가리키는데, 대체로 고콜은 바람벽에 설치된다. 이렇게 보면, 고콜은 관솔불을 올려놓기 위해 바람벽에 반쯤 뚫어 놓은 구멍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 고콜불, 달콤한 잠을 청하는 수면제 구실도 해 ●●

관솔은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에서 채취한 송진 덩어리인데, 그을음이 많이 나는 게 흠이지만 불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연료 구실을 했다. 장작을 썰 때마다 관솔이 나오면 따로 떼어서 모아두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나무를 땔감으로 삼았던 그 옛날부터 소중하게 썼던 것이 관솔이 아닌가 한다. 한자어로 송명(松明)이라 하고, 일부 지역어(북한어)로는 ‘솔광’이라 한다.

사람들이 나다니는 초저녁에 석유나 어유방등을 켜고 좀 시간이 지나면
고콜에 솔광을 지켰다가 그것마저 스러지면 때목초우 잠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박유학의 『그리운 조국 산천』에 묘사된 ‘솔광’이 바로 관솔을 가리킨다. 초저녁에 석유나 어유방등을 켜고 나중에는 고콜불로 바꾼다는 것인데, 물론 이는 값비싼 석유나 어유를 오랫동안 켤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긴 것이 아닌가 한다. 밤이 깊어지면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생리인데, 아직 잠들지 못한 일이 있거나 무언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았을 때 고콜불로 교체하고, 그 불이 다할 때쯤이면 잠이 든다는 논리다. 실제로 관솔향은 수면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참으로 탁월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고콜을 이용해 불을 밝혔다는 민속 현장의 낯선 정보만큼 고콜의 단어 뜻도 낯설다. 그러나 고콜의 뜻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고콜의 생김새가 ‘코의 굴처럼 생겼다’ 해서 코골 또는 콧굴이라 한다는 견해를 참고할 따름이다. 더러는

강원도 토박이말로 ‘골쿠리’라 하나 이는 고콜>고쿨>골쿨의 변화 과정을 겪고 여기에 접미사 ‘이’가 달라붙은 것으로 볼 때 고콜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1779년 정조 3년에 역관 이수(李洙)가 편찬한 『한청문감(漢淸文鑑)』에 ‘곡홀’이라는 어휘로 올라있어 옛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대어 ‘고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듯하다. 곡홀의 연음이 ‘고콜’이기 때문이다. 『한청문감』이라는 외국어 사전에 고콜이 등재되었다는 것은 상호간에 알아야 할 만큼 널리 쓰인 어휘임을 알 수 있고, 당시에는 고콜이 국내외적으로 두루 쓰인 등화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어쩌면 만주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등화구를 썼던 것은 아닐까 한다.

●● 불박이 등화구이면서 난방기구 ●●

벽에 구멍을 뚫어놓고 관솔불을 밝힌다! 주로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 이런 방법을 방안을 밝힌 <고콜불>을 썼다. 매우 이색적인 등화 방법이긴 한데, 알고 보면 꽤 단순한 구조다. 고콜은 관솔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벽과 벽이 맞닿는 모서리에 만든 작은 아궁이 시설을 가리킨다. 방안 윗목 모서리에 진흙으로 둥글게 쌓아올리는데, 아래쪽에 턱을 지어 아궁이를 붙이고 위쪽에는 처마처럼 그을음과 연기를 빨아들이도록 했으니, 마치 덮개 있는 새둥지 같다고나 할까. 그러나 아궁이라지만 온 방을 밝히기에 적당한 높이, 이를테면 등잔 높이쯤 쌓는다. 어림짐작으로 40cm쯤의 높이이며, 아궁이의 한 변이 20cm의 크기이다. 고콜을 ‘코의 굴처럼 생긴’ 불이라는 설명이 나올 법한 구조다. 아무튼 고콜은 일종의 불박이 등잔이면서 난방기구인 셈이다.

고콜에 타오르는 빛은 다른 불과는 달리 빠알간 불줄기 그 자체다. 관솔에 붙은 불의 색깔과 불의 모양새가 벗어낸 듯 특성 때문이다. 어둠에 피어나는 불줄기와 고콜불이 밝히는 불빛은 경이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나 할까. 아마도 굴뚝 끝에서 빨아올리는 힘 때문에 불줄기가 실처럼 피어나는 일일 텐데, 새빨간 불줄기가 홍실처럼 피어오르다 마침내 검은 빛줄기처럼 고콜의 천장으로 빨려 올라가는 모습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일 것이다. 필자 역시 이를 처음 보던 십여 년 전의 그 황홀한 낮섭을 잊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어둠 속에 피어오르는 고콜의 불줄기는 방안 가득히 내려 앉아있는 어둠을 쫓기에 충분했고, 아낙네들은 그 불빛으로 바느질도 하고 길쌈도 했다. 그만큼 관솔불은 넉넉한 불빛을 주었다는 뜻이다. 환한 전등불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불빛 아래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아마도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겠지만, 불빛의 느낌은 상대성을 갖는다. 어둠이 짙던, 그리고 불빛이 귀했던 옛 사람들이 그 시절 고콜불에게 느끼던 불빛은 어쩌면 지금의 전등불 보다 훨씬 밝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다시 고콜 이야기로 돌아가면, 관솔이란 게 워낙 송진 덩어리인지라 시꺼먼 연기가 일어 방안 사람들을 늘 괴롭혔다. 그래서 벽을 따라 지붕 밖으로 굴뚝을 내어 연기를 쫓는 지혜도 놓치지 않았다. 처음 보는 이들은 고콜을 작은 벽난로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벽난로는 난방용 화로이기에 장작과 같은 땔감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큼직한 아궁이이고 그 높이도 방바닥에 닿을 만큼 낮은지라 눈여겨보면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석탄을 주 연료로 쓰기 전에는 강원도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이 나무를 땔감으로 썼다. 그러나 강원도만큼 나무를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이산 저산 지천으로 나는 나무를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역시 산간 지방인지라 관솔도 쉽게 얻기 마련이다. 장작을 쪼갤 적에 누렇게 익은 관솔이 흔치 않게 나오는데, 이를 따로 떼어 좀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쓴 것이 바로 고콜불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관솔은 전혀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서 그대로 취한 자연 연료라 하겠다.

● 강원도의 고콜불은 강원도 민가의 한 특징 ●

고콜은 그러나 오로지 방을 밝히는 데에만 쓰이지 않았다. 관솔불을 오래 피우다 보면 상당한 열이 발생하는지라 자연히 방안 공기를 덥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찬 기운을 가시는 정도겠지만, 그 또한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고콜에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구워먹는 일은 어른들 뭇이라기보다 재기가 넘치는 아이들 차지다. 어찌다 운 좋게도 아궁이에서 숯이라도 얻으면 부삽으로 퍼다가 고콜에 올려놓고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구워 먹는 솔솔한 재미를 어찌 아이들이 잊어버리겠는가. 화롯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내 고콜의 재미와 그 맛을 떠올릴 수 있으리라. 깊은 겨울밤이 찾아오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떠오르는 정겨운 추억의 불빛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렇기에 강원도 산간 지방의 가옥이 지닌 여러 특징의 하나로 고콜을 꼽을 정도이다. 흔히 전통가옥을 연구하는 이들은 강원 지역 가옥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한다. 우선 전(田)자형 평면구조를 꼽고, 더불어 너와, 굴피, 새와 같은 특수 재료의 지붕을 돌재로 치며 고콜이나 화티(부뚜막에 만들어 놓은 불씨 보관소)와 같은 특수시설을 그 특징으로 친다. 이는 곧 고콜과 같은 시설이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등화구이며, 그만큼 산간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이제 골골이 들어간 전깃불 탓에 고콜의 모습은 흔치 않지만 그래도 고콜불을 밝힌 한겨울밤의 신비한 분위기를 맛보고 싶다. 강원도를 여행할 때마다 짬을 내어 민가를 구경하고, 고콜이 있는가를 살피는 버릇이 든 것도 혹여 고콜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㉞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너외집에 피운 고콜불 / 사진 · 황현만

